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주관적 건강인식의 매개효과

최아영¹, 박유미^{2*}

¹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²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The Effects of Subjective Class Perception on Suicidal Ideation in Children of Single-Parent Families: Verification of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ubjective Health Perceptions

Ah-Young Choi¹, Yu-mi Park^{2*}

¹Ph.D. Candidate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at University of Seoul

²Ph.D. Program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at Ha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 충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우울과 주관적 건강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활용하였고, 조사에 응답한 한부모가정 자녀 618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자살충동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충동의 관계에서 우울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충동의 관계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른 자살충동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안했다.

키워드 : 한부모가정 자녀, 주관적 계층인식, 우울, 주관적 건강인식, 자살 충동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subjective class perception of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affects suicidal thoughts and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s of depression and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To this end, the analysis data used the 2020 Korean Children and Youth Human Rights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and 618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who responded to the survey were selected and analyzed as study subjec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subjective class perception, the lower the suicidal impulse. Second, depression was found to be complete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class perception and suicide impulse. Third, subjective health awareness was found to be complete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class perception and suicidal thought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we proposed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to reduce suicidal impulses according to the subjective class perception of children of single-parent families.

Key Words : Children of single-parent families, Subjective class perception, Depression,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Suicidal ideation

*Corresponding Author : Yu-mi Park(ymp8934@naver.com)

Received June 8, 2023

Accepted September 20, 2023

Revised August 23, 2023

Published September 28, 2023

1. 서론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가족구조 또한 급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1985년 9,571가구에서 2021년 151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11%가량 차지하고 있어[1] 이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가족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한부모 가정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보이지만 가족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를 중요하게 꼽을 수 있다[2]. 사회의 변화에 따라 남녀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예전과는 달리 여성이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이혼율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로 이혼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예전보다 어렵지 않게 되며 이에 한부모가족은 점차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이란 한쪽 배우자의 사망뿐 아니라 이혼, 별거 등을 포함하게 되며, 이러한 사유로 양친 중의 한쪽 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라 정의할 수 있다[2]. 한부모가족의 구성원들은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족기능 변화와 역할의 재조정, 자녀의 심리 및 행동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을 직면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청소년기를 보내는 자녀들은 다양한 변화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3]. 한부모가정 자녀는 양부모가정 자녀에 비해 건강과 정서적 적응 및 행동발달, 학업성취도 등과 같은 많은 부분에서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발달의 모든 영역에 걸쳐 낮은 수준으로 보고됐다[4, 5]. 이런 과정에서 심리·정서적, 경제적 괴로움이 과도한 상태에 놓여있는 한부모 자녀일 경우 우울과 자살 충동은 높아지게 되고 불안과 비행, 공격 행동, 가출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2]. 청소년기에 경험해야 하는 보편적인 발달과업을 완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구조의 변화까지 경험해야 하는 한부모 가정 자녀들은 심리적 어려움과 정신건강 문제까지 겪고 있는 것이다.

자살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청소년의 자살원인으로 꼽히는 고의적 자해는 지난 9년간 청소년 사망원인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6].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정서적 요인[7, 8], 낮은 사회경제적 요인[9], 가정 내 또는 학교생활 적응과 같은 상호작용 발생하는 요인[10]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인

해 가구 경제의 악화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양부모보다 한부모가정 자녀들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8]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상태 악화는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11].

자살에 미치는 많은 요인 중 우울은 양부모 자녀들에 비해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이 겪는 정신적인 어려움이다[12-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16]에 따르면, 한부모가정 자녀의 우울 수준(38%)이 양부모가정 자녀의 우울 수준(22.3%)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혼과 사별 등의 요인으로 한부모 혼자 가정을 담당하면서 경제적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런 기제는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으로 기능하여 한부모 자녀들의 우울 및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17]. 이러한 우울은 한부모 가정 자녀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19] 극단적으로는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21] 한부모 자녀들의 우울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울과 함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인식을 꼽을 수 있다.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인 주관적 건강인식은 자신의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포괄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를 내림으로써 의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건강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다[22]. 특정한 질병보다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활동이 제한되었다고 느끼는 주관적 건강인식은 우울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자살을 유도하는 등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 건강인식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23, 24]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은 경향이 있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감을 높여 자살생각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 이처럼 양부모가정 자녀에 비해 충분한 돌봄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자녀들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우울은 이들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부모가정 자녀들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정 자녀들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주관적 건강인식과 우울의 매개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부모 가정은 양부모 가정보다

자산이 부족하고 부채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낮은 가구소득, 부족한 소비지출, 주거 불안정, 불안정한 근로에 노출되어 있다[25]. 특히 여성 가구주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 고용의 질, 노동시장의 단절 등으로 가사 및 양육과 경제활동의 양립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계층 이탈, 빈곤 위험이 다른 계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26]. 이러한 가족구조는 한부모 자녀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계층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교육, 양육, 소득, 경제활동 등 사회경제적으로 양부모 가정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26] 계층이탈, 빈곤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졌다[27-29].

주관적 계층인식은 주관적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관적 계층인식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인지하며, 상병 진단을 많이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아지며[30], 계층인식이 낮을수록 건강에 위협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 주관적 건강인식 수준이 낮다[31].

한편, 주관적 건강인식은 가족구조의 형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Choi[32]의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구성일 경우 청소년들의 주관적 건강인식이 낮다고 평가했으며,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Vigilis et al.,[33] 역시 한부모 가족구조가 가족관계 내 스트레스, 부모의 관리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요인이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인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 가족구조가 주관적 건강인식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며,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낮은 계층인식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더불어,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우울감을 증가시킨다[34]. 따라서 한부모 가정의 낮은 경제적 수준은 이들 자녀의 계층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정신건강 약화에도 밀접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인식하는 낮은 계층인식은 한부모 자녀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자살 충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보장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자살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계층인식이라는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한부모 자녀의

자살 충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계층인식과 자살 충동의 관계에서 위험요인으로 예측되는 우울과 주관적인 건강인식이 어떻게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부모 자녀들의 자살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개인적, 신체적, 심리적 요인 외에 주관적 계층인식과 같은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한부모가정 자녀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자살 충동은 낮아질 것이다.
- 〈가설 2〉 한부모가정 자녀의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 충동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할 것이다.
- 〈가설 3〉 한부모가정 자녀의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 충동의 관계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은 매개할 것이다.

제시한 가설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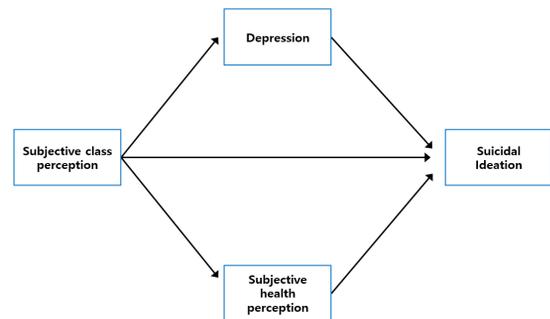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2.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20)자료를 활용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초·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전국단위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있어 응답자 스스로가 인식하는 계층인식과 신체 및 정신건강 등을 측정하는 문항을 다수 포함하

고 있다는 점에 본 연구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대상자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20)에 응답한 한 부모가정 자녀 694명 중 측정에 있어 이상값을 나타내는 76명을 제거하여 618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3 측정 도구

2.3.1 종속변수: 자살 충동

자살 충동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설문 문항 중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단일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생각해 본 적이 없다’(1)~‘자주 생각한다’(3)의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충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2.3.2 독립변수: 주관적 계층인식

주관적 계층인식은 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계상 위치를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35, 36]. 이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설문 문항 중 응답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을 묻는 단일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매우 못 산다’(1)~‘매우 잘 산다’(7)의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형편이 좋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2.3.3 매개변수: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설문 문항 중 이유 없이 외롭고 불안하고,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3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 측정지표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860로 나타났다.

2.3.4 매개변수: 주관적 건강인식

주관적 건강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설문 문항 중 주관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단일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1)~‘매우 건강하다’(4)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것을 의미한다.

2.4 자료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정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측정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셋째, 측정변수 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넷째, 우울과 주관적 건강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활용하였다. 다섯째,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 충동의 관계에서 우울과 주관적 건강인식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추정법을 5,000회 수행하였다. 모든 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 패키지 SPSS WIN 25.0과 Hayes[37]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한부모가정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학생 48.4%, 여학생 51.6%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다. 학교급은 고등학생의 비율이 45.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중위권에 속한 학생의 비율이 39.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49.2%, 경험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50.8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ies	n	%
gender	boy	299	48.4
	girl	319	51.6
school class	elementary school	144	23.3
	middle school	191	30.9
	high school	283	45.8
grade	poor	244	39.5
	fair	245	39.6
	good	129	20.9
discrimination experience	no	314	50.8
	yes	304	49.2

3.2 기술통계 분석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먼저, 독립변수인 주관적 계층인식의 평균값 4.123 (SD= 1.141, Skew= .185~Kurto= .834), 매개변수인 우울의 평균값 2.044(SD= .939, Skew= .391~Kurto= -.977),

주관적 건강인식의 평균값 3.039(SD= .735, Skew=-.430~Kurt= .081), 종속변수인 자살 충동의 평균값 1.424(SD= .642, Skew= .940~Kurt= .095)로 나타났으며, 모든 주요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3과 8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은 확보되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	Mean	S.D	Skew	Kurt
X	4.123	1.141	.185	.834
M1	2.044	.939	.391	-.977
M2	3.039	.735	-.430	.081
Y	1.424	.642	.940	.095

X=Subjective class perception M1=Depression, M2=Subjective health perception, Y=Suicidal Ideation

3.3 상관관계 분석

주요변수인 주관적 계층인식과 우울, 주관적 건강인식, 자살 충동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주관적 계층인식과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인식($r = .184, p < .01$)은 정(+)적인 상관관계, 매개변수인 우울($r = -.154, p < .01$)과 종속변수인 자살 충동($r = -.114, p < .01$)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매개변수인 우울과 종속변수인 자살 충동($r = .514, p < .01$)은 정(+)적인 상관관계,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인식($r = -.315, p < .01$)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인식은 종속변수인 자살 충동($r = -.316, p < .01$)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X	M1	M2	Y
X	1			
M1	-.154**	1		
M2	.184**	-.315**	1	
Y	-.114**	.514**	-.316**	1

X=Subjective class perception M1=Depression, M2=Subjective health perception, Y=Suicidal Ideation
* $p < .05$, ** $p < .01$

3.4 가설검증

3.4.1 매개효과 검증

한부모가정 자녀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 충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우울과 주관적 건강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37]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활용하였다.

PROCESS MACRO는 표본을 반복적으로 복원추출하여 분포를 추정하는 Bootstrapping 추정법을 통해 각 경로에 대한 효과 및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는 다중매개 모형 분석에 있어 매개변수 각각의 경로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기법으로 우울과 주관적 건강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적합한 기법으로 이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Mediated effect

Path	B	β	95% C.I.
			LLCI~ULCI
Model 1 X→M1	-.127	-.154***	-.192~-0.063
Model 2 X→M2	.118	.184***	.068~.169
Model 3	X→Y	-.007	-.045~-0.032
	M1→Y	.314	.265~.362
	M2→Y	-.148	-.210~-0.086
Model 4 X→Y	-.064	-.114***	-.108~-0.020

X=Subjective class perception M1=Depression, M2=Subjective health perception, Y=Suicidal Ideation
* $p < .05$, ** $p < .01$

Model 1은 주관적 계층인식과 우울의 관계, Model 2는 주관적 계층인식과 주관적 건강인식의 관계, Model 3은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 충동, 우울, 주관적 건강인식의 관계, Model 4는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 충동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이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매개변수와 함께 투입된 Model 3에서 매개변수로 인해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모든 모형에서 모두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다면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38].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Model 1에서 주관적 계층인식($B = -.127, \beta = -.154, p < .001$)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LLCI= -.192~ULCI= -.063).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계층인식 수준이 높은 한부모가정의 자녀일수록 우울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Model 2에서 주관적 계층인식($B = .118, \beta = .184, p < .001$)은 주관적 건강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LLCI= .068~ULCI= .169). 이러한 결과는 주관

적 계층인식 수준이 높은 한부모가정 자녀일수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Model 3에서 우울($B = .314, \beta = .459, p < .001$)은 자살 충동에 정(+)적인 영향을(LLCI = .265~ULCI = .362), 주관적 건강인식($B = -.148, \beta = -.169, p < .001$)은 자살 충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LLCI = -.210~ULCI = -.086)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매개변수인 우울과 주관적 건강인식이 투입된 모형에서 주관적 계층인식($B = -.007, \beta = -.012, p > .05$)은 자살 충동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LLCI = -.045~ULCI = .032). 이러한 결과는 우울 수준이 높은 한부모가정 자녀일수록 자살 충동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 충동을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가설 2-2>와 <가설 3-2>는 채택되었다. 더불어, 매개변수인 우울과 주관적 건강인식이 함께 투입되면서 독립변수인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져 우울과 주관적 건강인식은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 충동의 관계에서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4에서 주관적 계층인식($B = -.064, \beta = -.114, p < .01$)은 자살 충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LLCI = -.108~ULCI = -.020).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계층인식 수준이 높은 한부모가정 자녀일수록 자살 충동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설 1>은 채택되었다.

3.4.2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우울과 주관적 건강인식의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추정법을 5,000회 실시하였다(Table 5). 분석결과, 주관적 계층인식이 우울과 주관적 건강인식을 각각 매개하여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총효과($B = -.064, \text{Boot S.E.} = .023, \text{LLCI} = -.108 \sim \text{ULCI} = -.020$)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직접효과($B = -.007, \text{Boot S.E.} = .020, \text{LLCI} = -.045 \sim \text{ULCI} = .032$)는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울과 주관적 건강인식의 개별적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계층인식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가 나타났고($B = -.071,$

$\text{Boot S.E.} = .019, \text{LLCI} = -.109 \sim \text{ULCI} = -.035$), 주관적 계층인식이 주관적 건강인식을 매개로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가 나타났고($B = -.031, \text{Boot S.E.} = .011, \text{LLCI} = -.057 \sim \text{ULCI} = -.013$). 이에 우울과 주관적 건강인식은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 충동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했고 <가설 2>와 <가설 3>은 채택되었다.

Table 5. Bootstrapping

Path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Total Effect	-.064	.023	-.108	-.020
Direct Effect	-.007	.020	-.045	.032
Total Indirect Effect	-.102	.023	-.147	-.057
Indirect Effect 1	-.071	.019	-.109	-.035
Indirect Effect 2	-.031	.011	-.057	-.013

X=Subjective class perception M1=Depression,

M2=Subjective health perception, Y=Suicidal Ideation

Indirect Effect 1= X→M1→Y

Indirect Effect 2= X→M2→Y

* $\alpha < .05$, ** $\alpha < .01$, *** $\alpha < .001$

4. 결론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한부모가정 자녀들의 자살 충동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경로의 발생지점으로 분석된 한부모 자녀들의 계층인식과 각 단계별 경로에 위치한 우울과 주관적 건강인식에 대한 각각의 개입방안을 찾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부모 자녀들의 자살 충동에 이르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첫째,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계층인식은 자살충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주관적 계층인식이 낮을수록 자살충동이 높아진다는 Choi & Hwang[4], Jeong et al.[5], Zang & Tao[39] Callan, et al.[40], Mishra & Carleton[41], 의 연구를 지지한다. 따라서 한부모 가구 자녀의 경우 가정 구성원의 부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계층차이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고 타인과의 비교 및 사회구성원 인식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확립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한부모들의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이

필요하다. 또한 성장 과정에 있는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 등 한부모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긴급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을 조기에 발굴하는 촘촘한 복지정책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우울은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충동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부모가정 자녀 스스로가 지각하는 가정형편 수준이 높으면 우울감이 낮아지고 자살충동도 낮아진다. 이처럼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충동의 관계에서 우울은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는 결과이며 주관적 계층인식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0]. 이러한 결과에 따라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우울을 관리할 수 있는 심리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겪는 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상실감, 또래 친구들과 다른 가족 형태의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 및 우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심리·정서지원과 심리·외상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주관적 계층인식은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과 함께 대상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 강화에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주관적 계층인식은 주관적 건강인식을 거쳐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쁠수록 자살충동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주관적 계층인식은 자살충동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아 주관적 건강인식은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충동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가정 자녀 스스로가 지각하는 가정형편 수준이 높으면 주관적 건강인식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자살에 대한 충동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충동의 관계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은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는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계층인식과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8, 20, 42]. 주관적 건강인식이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 충동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함에 따라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건강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있어 주관적 건강인식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자아상(self-concept)으로 인식되며, 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 관련 정체성으로 이어지므로 매우 중요하

다[48]. 따라서 한부모 가정 자녀와 같이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 등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과 건강한 신체상, 충분한 수면, 규칙적 식사를 위한 건강상담, 보건의교육과 함께 절망감,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20)자료는 횡단자료로 시간의 흐름에 다른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 충동, 우울, 주관적 건강인식의 변화를 추적하지 못한 점에 있어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변화 궤적에 관한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20)에서 활용한 자살 충동과 주관적 계층인식, 주관적 건강인식 측정지표는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각 변수 측정에 있어 설명력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정형화된 척도를 활용하여 분석할 것을 일임한다.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계층인식과 자살 충동의 관계와 우울, 주관적 건강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의의가 있다.

셋째, 한부모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자녀들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한부모가정의 자녀라도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따라서 그 영향은 또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점이다. 한부모가정의 유형 특성에 따른 자녀들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은 후속 연구로 일임한다.

REFERENCES

- [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tblId=DT_1B81A16
- [2] S. O. Kim, J. R. Jun & Y. S. Kim. (2012). A Review of the Research Trends and Findings on the Single Parent's Children - Focusing on the Family Related Professional Journals -,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7(1), 113-128.
- [3] S. H. Oh. (2001). A Comparative Study on Determinant of School Achievement between Broken and Intact Family's Youth, *Journal of*

- School Social Work*, (4), 53-80.
- [4] R. Choi & B. D. Hwang. (2017). Study on Moderating Effect of Subjective Health State of Elder Who Lives Alone on the Influence of Those People's Stratum Consciousness on Their Depress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12), 426-436. DOI : 10.5392/JKCA.2017.17.12.426
- [5] W. C. Jeong & M. O. Tae. (2017). The Relationship of Subjective Recognition of Social Class and Mental Health in Korean Adul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KJOHSM)*, 11(3), 115-127. DOI : doi.org/10.12811/kshsm.2017.11.3.115
- [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2). 2022 Youth Statistics.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7] J. Y. Lee & K. M. Kim. (2017).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Living in a Multi-cultural Family in South Korea: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1(2), 119-129. DOI : 10.21896/jksmch.2017.21.2.119
- [8] R. H. Lee & H. L. Chang. (2022). The Influence of Economic Deterioration Caused by COVID-19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Adolescents in Single-parent Families: Focusing on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gender through anxiety,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24(1), 1-26. DOI : 10.19034/KAYW.2022.24.1.01
- [9] M. D. Kim, Y. E. Jung, S. C. Hong, C. I. Lee, Y. S. Kwak, H. J. Kim, W. M. Bahk, B. H. Yoon, J. H. Shin & M. Y. Hyun. (2014).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i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pharmacology*, 25(2), 85-89. UCI : G704-000927.2014.25.2.005
- [10] J. S. Park. (2011). Structural Relationship of School Risk Factors and Suicide Ideation in Adolescence, Based on 'Escape Theory' Mode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3(3), 5-27. DOI : 10.20970/kasw.2011.63.3.001
- [11] J. M. Han (2021).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and change of economic status during COVID-19 among adolescent, Wonju: Sang-ji University.
- [12] S. Y. Lee. (2002). Study of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0(10), 37-65.
- [13] Y. W. Kim. (2010). Long-term Effects of Change in Family Structure On Achievement During Transition to Adulthood : Focusing on the effect of parental divorce/death on health condition, depression and educational attain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1(4), 225-246. DOI : 10.16999/kasws.2010.41.4.225
- [14] J. Y. Kim, J. Y. Choi & S. J. Yang. (2012).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of Female Children with Single Parent and Nuclear Famili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7(2), 217-235. UCI : G704-001334.2012.17.2.008
- [15] S. A. Wolchik, J. Y. Tein, I. N. Sandler & K. W. Doyle. (2002). Fear of abandonment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 between divorce stressors and mot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ren's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4), 401-418. DOI : 10.1023/a:1015722109114
- [16] J. W. Lee, J. G. Hwang, S. H. Mo, E. J. Jung, H. C. Kang, Y. G. Han, H. J. Huh, E. O. Moon & Y. H. Lee. (2014).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V. Sejong: Korea Institute for Youth Policy.
- [17] S. J. Song. (2014). The protective factors of family structure on child depression: Focusing on parental emotional support and community support, *Studies on Korean Youth*, 25(1), 107-127. DOI : 10.14816/sky.2014.25.1.107
- [18] S. I. Nam & H. J. Lee & S. J. Kim & B. K. Kim. (2016). The Effect of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on Suicidal Ideation in Older Korean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2), 121-150. DOI : 10.15709/hswr.2016.36.2.121
- [19] S. H. Lee, O. K. Lee & J. H. Kim. (2005). Predicting internalizing problems of Korean children of divorce: The role of self-efficacy, peer attachment, parent-child communication,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23(1), 99-111. UCI : G704-000320.2005.23.1.009
- [20] J. H. Kim. (2018). Subjective social class and social class mobility and the associations with

-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Comparison between standard workers and nonstandard worker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35(5), 57-68.
DOI : 10.14367/kjhep.2018.35.5.57
- [21] J. Y. Park. (2010). The mediational effects of resiliency on school violence causing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e :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1(1), 345-375.
DOI : 10.16999/kasws.2010.41.1.345
- [22] Ware Jr, J. E. (1987). Standards for validating health measures: definition and content. *Journal of chronic diseases*, 40(6), 473-480.
- [23] J. W. Kim & Y. S. Shin. (2015). The Effect that Self-Diagnosis and Experiencing Loss has on the Suicidal Tendency of Elderly Living Alon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Moder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Level,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5(3), 689-708. UCI : G704-000573.2015.35.3.002
- [24] H. Y. Sung, S. K. Lee & J. H. Na. (2021). A study on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of older people: Focused on the group comparisons by objective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Yonsei University*, 69, 117-143.
- [25] Y. W. Kim. (2012). The Current State of Single-Parent Families: Welfare Needs and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87, 50-59.
UCI : I410-ECN-0102-2018-300-000205809
- [26] H. J. Lee & J. D. Yoon. (2017). Socioeconomic Profile and Housing Wealth Effects of Home-owning Single Parent Families, *KOREA REAL ESTATE ACADEMY REVIEW*, 70, 221-235.
- [27] J. Y. Lee & K. M. Kim. (2017).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Living in a Multi-cultural Family in South Korea: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1(2), 119-129.
DOI : 10.21896/jksmch.2017.21.2.119
- [28] J. H. Kim & K. H. Kim. (2019). Influence of Constructive Factors of Predictive Variabl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1), 634-647.
DOI : 10.5392/JKCA.2019.19.01.634
- [29] E. K. Byun, M. Y. Kim & E. H. Kang. (2020). Factors Influencing Suicide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JKAIS)*, 21(8), 315-324.
DOI : 10.5762/KAIS.2020.21.8.315
- [30] R. Choi, J. Y. Park & B. D. Hwang. (2013). Health Care Utilization according to Income class and Subjective Income class : Measurements Based on Korea Health Panel, *Health and Social Science*, 33(1), 85-107.
UCI : G704-001339.2013..33.001
- [31] D. W. Yang. (2014). The effects of subjective social status on health-risk behaviors and self-rated health, a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32] K. W. Choi. (2014). Factors related to Self-Rated Health in Adolescents: Findings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31(3), 39-50.
DOI : 10.14367/kjhep.2014.31.3.39
- [33] E. Vingilis., T. J. Wade & J. S. Seeley. (2002). Predictors of adolescent self-rated health. Analysis of the National Population Health Survey.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 193-197.
- [34] N. E. Adler, E. S. Epel, G. Castellazzo, & J. R. Ickovics.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DOI : 10.1037//0278-6133.19.6.586
- [35] B. H. Lee & J. H. Yoon. (2006). The Change of Social Consciousness, *Economy and Society*, (70), 111-140. UCI : G704-000107.2006..70.011
- [36] M. R. Jackman & R. W. Jackman. (1973). An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American Sociology Review*, 38(5), 569-582. DOI : 10.2307/2094408
- [37] A. F. Hayes.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Health: Relationships reconsidered". *Social Science & Medicine*, 82, 58-66.
- [38] NPJ Data Analysis Research Institute. (2021). *Paper Writing Method Using SPSS and PROCESS MACRO*. Seoul : g-world

- [39] J. D. Boardman. (2006). Self-rated health among U.S.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 Health*. 38 (4), 401-408.
DOI : 10.1016/j.jadohealth.2005.01.006
- [40] M. J. Callan & H. J. Kim & W. J. Matthews. (2015). Predicting self-rated mental and physical health: The contributions of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personal relative deprivation. *Frontiers in Psychology*, 6, 1-14.
- [41] S. Mishra & R. N. Carleton. (2015). Subjective relative deprivation is associated with poorer physical and mental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147, 144-149.
- [42] S. I. Nam & H. J. Lee & S. J. Kim & B. K. Kim. (2016). The Effect of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on Suicidal Ideation in Older Korean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2), 121-150. DOI : 10.15709/hswr.2016.36.2.121
- [43] J. D. Boardman. (2006). Self-rated health among U.S.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 Health*. 38 (4), 401-408.
DOI : 10.1016/j.jadohealth.2005.01.0

최 아 영(Ah-Young Choi)

[정회원]



- 2017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23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수료)

- 관심분야 : 지역사회, 청년, 장애인, 청소년
- E-Mail : metzs922@naver.com

박 유 미(Yu-Mi Park)

[정회원]



- 2017년 2월 : 한세대학교 심리상담학과 (석사)
- 2021년 3월~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다문화, 청소년, 자원봉사
- E-Mail : ymp8934@naver.com